한국형에니어그램이 만들어 가는 상담 복지 교육매거진

www.kenneagram.com

월간 나눔과 힐링

ISSN 2288-2251
등록번호 : 금천 라 00139호
제 32 호
2015년 12월 25일~2016년 01월 24일
발행인 · 편집인 : 윤운성
기사제보 : 02-3446-3165 / FAX : 02-515-6784
인쇄 :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월간 나눔과 힐링'은 매월 25일에 발간하여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의 소식과 학술단체 및 복지단체의 소식을 전하는 통합 매거진입니다.

blog.naver.com/kenneagram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학회
(사)성심인성연구원

송년회 및 시상식

〈교육상〉

성명	소속
김순자	홍익심리교육연구소

〈공로상〉

성명	소속
동아대학교 학생생상담센터	
김명주	SK텔레콤 인재개발원
구자현	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
강현수	한국영상대학교
황금옥	

〈특별공로상〉

성명	소속
김직호	한국전인상담문화원
윤천성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김새한별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2015년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송년회 및 시상식

2015년 12월 23일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에서 많은 임직원 및 전임교수의 참여 가운데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의 송년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공사다망한 12월에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참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뵙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께서 나눠주신 행복과 감사의 에너지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형에니어그램이 만들어 가는 상담·복지·교육 매거진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www.kenneagram.com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9 SJ테크노빌 1116호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TEL. 02) 3446-3165 | FAX. 02)515-6784 | Email. help@kenneagram.com

C·O·N·T·E·T·N·S

- **시를 통한 힐링** 03
  조지훈의 '새 아침에'
- **핫피플** 05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교육부 주관 2015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수상
-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소식** 07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4단계
- **에니어그램과 성장프로그램** 09
  1번 유형의 영혼잠재력
- **에니어그램 북카페** 11
  한국형에니어그램 코칭
  〈장중심의 코칭 스킬 : 피드백하기〉
- **에니어그램과 웰빙** 13
  한국형에니어그램 4기 전문강사 이후경
  〈허드렛일이라도 절망하지 말라〉
- **에니어그램으로 보는 세상** 15
  3번 유형들의 원만한 관계를 위한 사례
- **에니어그램과 영화** 17
  영화로 배우는 심리학개론
  〈인셉션〉 2편
- **에니어그램과 여행** 19
  한국형에니어그램 11기 전문강사 조혜성
  〈헤알 멘토십 프로그램〉
- **에니어맛지도** 21
  해산물 맛 달력
- **책 · 교육도구 소개** 23
  검사도구 및 교육도구 소개
- **문화소식** 25
  연극, 영화, 콘서트 등 이달의 문화소식
- **연구소 소식 및 회원동정** 27
  연구소&센터소식, 회원 및 전문강사 동향
- **교육일정** 29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1월 교육일정

새 아침에

조지훈

모든 것이 뒤바뀌어 질서를 잃을지라도
성진(星辰)의 운행만은 변하지 않는 법도를 지니나니
또 삼백예순날이 다 가고 사람 사는 땅 위에
새해 새아침이 열려오누나.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영겁(永劫)의 돌래를
뉘라서 짐짓 한 토막 짤라
새해 첫날이라 이름지었던가.

뜻 두고 이루지 못하는 한(恨)은
태초 이래로 있었나보다
다시 한번 의욕을 불태워
스스로를 채찍질하라고
그 불퇴전의 결의를 위하여
새아침은 오는가.

낡은 것과 새것을
의와 불의를
삶과 죽음을 --
그것만을 생각하다가 또 삼백예순날은 가리라
굽이치는 산맥 위에 보랏빛 하늘이 열리듯이
출렁이는 파도 위에 이글이글 태양이 솟듯이
그렇게 열리라 또 그렇게 솟으라
꿈이여!

교육기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교육기부대상 수상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가 2015년 12월 15일 오후 4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2015년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매년 교육기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기업을 선정하는 상으로 올해로 4회째다.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은 교육의 사회환원과 나눔문화를 정착시키고자 2015년 한 해 동안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 포상하고, 교육기부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서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와 더불어 단체와 개인들이 수상하였다.

'교육기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올해 시상식에서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는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왔던 기부프로그램들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는 2015년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부 박람회'에 참가해 20,000만명의 학생들에게 에니어그램 검사 및 상담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윤운성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장은 "한국형에니어그램성격유형검사를 통한 진로교육 및 인성교육은 학생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며 "향후에도 연구소의 교육기부 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전하며 수상소감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에 우리가 가진 온기를 나누고자 시작한 교육봉사활동을 교육기부대상으로써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수상의 영광을 소장의 철학과 뜻을 이해하고 함께 해준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가족들에게 돌립니다. 또한 교육기부사업을 위해 함께 노력한 구성원에게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나눔이 조금이라도 더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하였다.

한국형에니어그램

4단계 : 에니어그램 평가

2015년 12월 19~20일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본관 202호 강의실에서 1박 2일간 2015년의 마지막 한국형에니어그램 4단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4단계 교육과정은 에니어그램 의식수준에 대한 접근을 통해 성격유형론과 관련 심리학적 이론을 비교분석하고 에니어그램 관련연구를 평가하여 에니어그램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통찰적 자각을 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가는 여행을 통해 얻은 사색과 통찰이 우리의 성장과 인류의 통합적인 발전과 행복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교육내용

성격유형론 이해	국내외 관련 연구
성격유형론 분석적 고찰	의식성장을 위한 연습
에니어그램과 심리학의 관련성	일반적 원칙
에니어그램과 심리학: 프로이드, 케렌 호니, 융,	힘의 중심
유형별 발달수준의 이해	9가지 유형
유형별 발달수준: 발달수준의 개념	명상/이완훈련/자각훈련
관련 연구 분석 및 방향	에니어그램의 균형/통합적 접근
에니어그램 선행연구분석	영화를 통한 에니어그램 연구

1번 유형의 영혼잠재력

결국 당신의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당신 자신, 진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혹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진정한 나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되고 싶은 자신을 실제의 자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착각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행스러운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 –

1번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행한 일을 평가하는데 온 신경을 쓰고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겉으로는 잘 웃고 사교적인 면을 보이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열심히 일해야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흑백 논리에 따라 생각하는 엄격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한 사람이라고 받아 들여지기 위해 자신의 감정, 특히 분노를 통제한다. 이들은 자신이 세운 기준에 자신이 충족되지 못할 때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한다. 때로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완벽해지고 싶어 한다.

장점	헌신적이다. 윤리적이다. 근면하다. 신뢰할 수 있다. 현실적이다. 양심적이다. 자기 통제를 잘 한다. 책임감이 강하다. 정직하다. 공정하다. 이상적이다. 창조적이다.
단점	독선적이다. 도덕주의적이다. 비판적이다. 쉽게 판단 내린다. 분노가 많다. 완벽주의다. 청교도적이다. 엄격하다. 교조적이다. 근시안적이다.

체크리스트

당신이 1번이라면 아래와 같을 확률이 크다.

-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복종하고(혹은 그것과 싸우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곱씹는다.
- 모든 일 특히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해 엄격한 규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왜냐면 모든 일에는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오래, 그리고 열심히 일하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자신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 놀기 전에 일을 모두 끝마쳐 놓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항상 일이 덜 끝난 느낌이다.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의 리스트를 말 혹은 글로 만든다.
-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전에 다른 사람의 욕구를 먼저 고려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후순위에 놓는다.
- 분노를 느낄 때가 많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 자신이 옳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 자신이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이 가장 옳고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책임감을 느끼게 하려 한다.
- 에너지가 많아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 상대보다는 자신을 덜 드러내는 대화법을 사용한다.

내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중심의 배치 1번들은 행동 중심을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결단, 행동, 자기 방어를 통해 삶을 해석한다. 이들은 감정지능과 행동지능으로 정보를 처리하는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은 특정 상황에 자신이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에 쏠려 있다. 이들은 사고 중심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을 잘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높은 성취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한다. 이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함으로써 기계적으로 삶에 반응한다.

핵심적인 장점

- 헌신을 통해 최고와 최상을 이끌어낸다.
- 사람들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상황을 파악하여 상황이 잘 실현되도록 근면하게 일한다.
- 높은 이상을 갖고 있으며 공정하고 정의롭다.
- 자기 통제력, 정직, 도덕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도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일하도록 격려한다.
- 자신의 고매한 인격과 타인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태도로 협동을 이끌어 낸다.
- 열심히 일하며 조용하지만 꾸준히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추구해 나간다.

잠재적인 약점

- 옳지 않은 것에 마음이 매여 있을 때에는 옳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 일을 할 때 한 가지 방식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다른 가능성이나 아이디어는 쉽게 닫아버린다.
-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분노가 많으며 다른 사람에게 요구가 많을 수 있다.
- 세부사항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기가 어렵고 중요한 일을 간과하기 쉽다.
- 이들의 독선적인 도덕성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고 영적 활력을 되찾는 방법

- 매일 자신의 전체적인 비전과 방향을 넓히고 명확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
- 새로운 가능성과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라.
- 당신은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기준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짜증과 분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라.
- 당신의 지금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고 넓힐 수 있는 다른 철학을 배우라.
- 가벼워져라. 긴장을 풀고 유머 감각을 개발하라.
-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재미있는 일을 할 계획을 세우라.
- 성장과 발달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신뢰하는 객관적인 사고를 하라.
-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다른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1번 유형에 대한 요약

회피	불완전함
열정	분노
선호하는 중심	행동 중심
지배 중심	행동 중심
지원 중심	감정 중심
억압된 중심	사고 중심
태도	순응
시간에 대한 지향	즉시, 즉각
상처	배신
억압된 덕목	믿음
잊혀진 어린아이	밝고, 호기심 많고, 의문이 많은 아이
신성한 이미지	지혜

1번이 심사숙고해야 할 질문들

1.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분노와 적개심을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가?
2. 다른 사람들이 일을 공평하게 하지 않아 화가 날 때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가?
3. 내가 일을 하는 데 쓰는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절한다면 내 생활이나 인간관계가 얼마나 만족스러워질까?
4.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성품이나 자질을 나는 왜 개발하지 못할까?
5. 내가 변화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하기 때문인가?
6. 내 생각만을 고집하지 말고 폭 넓은 인생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다른 관점에 귀 기울인다면 어떨까?
7. 나는 어떤 덕목을 개발하고 싶은가, 그 덕목을 개발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한국형에니어그램 코칭

장중심의 코칭 스킬 : 피드백하기

1. 인정 피드백

코칭에서의 인정은 칭찬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칭찬은 주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게 되고 코치에 대한 평가 의존성을 만들게 된다. 반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코치이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노력과 희생을 감수했는지 등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인정 피드백은 코치이에게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면의 자신감이 생기게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동기부여 역할을 한다. 인정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이야기 가운데 그 사람의 장점과 본질적 가치를 드러내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 실습하기

① 5~6명이 한 팀을 이루어 인정 피드백을 실습한다.
② 그룹원 중 한명에서 초점을 맞추고 다른 참가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인정 피드백을 사용한다. 인정을 할 때는 이유도 함께 이야기한다.
③ 모두 돌아가면서 인정을 한 후에는 인정받은 사람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한다.
④ 같은 방식으로 모든 참가자들이 각각에게 초점을 맞추어 인정피드백을 실습한다.
⑤ 모두 인정피드백을 한 후, 각자의 느낌을 나눈다.

2. 발전적 피드백

코칭이 잘 될 때는 초점과 목표가 분명하지만 코칭이 잘 되지 않을 때 코치이은 혼돈 속에 빠질 수 있다. 발전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코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 원인이나 느낌, 상황에 대해서 보다 솔직하게 피드백하는 것을 말한다. 발전적 피드백에서는 코치이의 행동이 변화방향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또한 코치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하는 피드백인 만큼 비난과 비판과는 다른 느낌이며 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한다.

① 코칭대화가 모호해지고 겉도는 느낌이 들 때
② 코치이이 진지하지 않거나 말과 행동에 불일치가 나타날 때
③ 정보제공이 필요할 때

3. 머물러주기

코칭에서 코치이가 중요한 질문을 받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되고 내면의 여러 기억과 사고과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통찰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시간이 필요하다. 코치는 코치이가 이러한 깊은 탐색과 통찰의 순간을 여유롭게 탐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침묵하고 머물러 주는 것이다.

초보코치들이 하는 흔한 실수는 질문을 하고 나서 상대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부연설명을 하는 것이다. 코치이이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인정하고 기다려주자. 코칭에서 침묵과 머물러주기는 필수적이고 잘 활용된다면 모든 질문이 가진 힘을 높일 수 있다.

※ 실습하기

① 2명이 1조를 이루어 코치와 코치이로 구분한다.
② 서로 2분 동안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침묵한다. 상대를 바라볼 때는 상대를 온전히 수용한다는 느낌으로 바라본다.
③ 2분이 흐른 후 침묵하며 받아들일 때의 느낌에 대해 나눈다.
④ 역할을 바꿔서 한 번 더 실시한다.
⑤ 침묵하며 온전히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적어보자.⑤ 모두 인정피드백을 한 후, 각자의 느낌을 나눈다.

4. 에니어그램 성격유형별 피드백 스킬

피드백 스킬과 관련한 에니어그램 유형별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피드백 스킬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용해 본다.

	피드백 특징	피드백 역량강화방안
8번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 주는 식으로 매우 정직한 피드백	• 긍정적인 호의 보여주기 • 감사함 표현하기 • 형용사와 부사를 더 많이 사용하기 • 인간적인 내용을 담기
9번	자신의 생각과 정험을 순차적으로 매우 정확히 자세하게 묘사	• 핵심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명확하게 피드백하기 • 지나치게 형식적인 언어 사용하지 않기 • 정중한 어투로 자신의 격정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기
1번	진심으로 그들이 결점이나 결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	•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옳다 혹은 그르다 식의 표현 삼가기 • 단정적이거나 단호한 표현을 유연한 표현으로 하기 •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고 독려하는 말 선택하기
2번	매우 관계 지향적이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며 도움과 조언을 제공	• 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자신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기 • '대단한, 굉장한' 등과 같은 과장된 표현 자제하기 • 추켜세우는 말 삼가하기 • 감정을 표현할 때 간단명료하고 직접적 표현 사용하기
3번	매우 명료하고 정직하며 진실한 인간관계의 바탕이 되는 개인적인 정보를 기꺼이 공유	• 건설적 피드백과 긍정적 피드백 균형 있게 제공하기 • 자신이 한 일과 성취에 대한 언급 줄이기 • 다른 사람의 반응 살피기 • 자신의 생각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기
4번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예측하고 원하는 것을 고려하며 이해하기 위해 노력	• '나, 나의, 나를, 내 것, 나 자신' 등과 같은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단어의 사용 줄이기 • 개인적인 말을 줄이고 더 객관적인 말 사용하기 • 말의 초점을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
5번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	•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만큼 감정도 표현하기 • 자신의 생각을 상세히 설명하기 • 대화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욕구를 좀 더 드러내기
6번	정면으로 맞서거나 혹은 회피하는 두 가지 태도를 동시에 취함. 대규모의 사전 계획을 세움	•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 그해결책을 제시하기 • 자신의 생각을 종합해서 하나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근심이 지나치게 표출되는 것을 막기 • 걱정과 두려움이 담긴 단어의 사용 줄이기
7번	빠른 속도로 말하고 화제를 재빨리 자연스럽게 바꿈.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재구성 함	•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지속적으로 초점 맞추기 • 긍정적인 정보뿐 아니라 문제도 상세히 설명하기 • 완전한 문장을 사용하기 • 구두점을 찍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한국형에니어그램 코칭 프로세스 이해

한국형에니어그램 코칭은 총 5단계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목표설정-열정점검-파워에니어그램-HOLY코치〉의 코칭 단계는 순환적으로 반복하면서 코치이가 자기관찰과 이해, 그리고 변형의 과정을 거치며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1) 에니어코칭 초대

한국형에니어그램 코칭의 첫 번째 단계는 에니어코칭 초대이다. 이 단계는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를 통해서 코치이를 이해하고, 코치이가 얻고자 하는 코칭의 이슈를 찾는 단계이다. 이때 에니어코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다.

(1) 에니어코칭 구조화하기

코치이와 코치가 에니어코칭의 기대를 맞추어 가는 단계이다. 구조화 과정은 크게 코칭 과정, 코칭 관계, 그리고 비밀 보장의 구조화로 이루어져 있다.

(2) 에니어그램 검사하기

코칭에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를 하는 것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생한 코치이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구체적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된다.
둘째, 코치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코치이의 내면의 동기를 알 수 있다.
셋째, 행동적 목표설정의 핵심적 단서를 제공한다.
넷째, 비자발적 코치이와의 작업을 생산적으로 만든다.

(3) 에니어코칭 주제탐색하기

코칭의 주제(격정거리, 문제, 찾아온 이유, 개발 이슈 등)를 명료하게 하는 단계로 코칭을 시작하기 위한 일종의 교량 역할을 하는 절차이다.

① 코치이의 주요 문제 탐색
② 현재 생활 및 환경 탐색
③ 코치이의 기대
④ 코칭과 심리검사에 대한 설명과 연결

2) 목표 설정

에니어코칭에서 목표설정 단계는 코칭의 주제를 명료하게 해서 코치이가 코칭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정의하는 단계이다. 전체적 목표를 설정하지만, 코칭의 한 회기마다에도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1~2가지씩 갖는 것이 좋다. 이때 구체적 실행여부를 회기 중에 다룬다.

허드렛일이라도 절망하지 말라

소외감은 소외감 부르니 사람 적극 만나고 후배들에게 도움 줘야

그녀는 퇴직을 5년 앞두고 있다. 30년간 재직했는데 그간 잘 나갔다. 능력을 인정받아 동기들보다 승진이 빨랐다. 30년 전만 해도 여성 취업이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터라, 소수자인 여성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최초의 여성 임원도 꿈꿀 수 있었다. 동료들조차도 그런 상황을 인정할 정도였으니, 그녀의 직장생활은 꽤 괜찮았음이 틀림없다. 그런데 2년 전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다. 감사에 걸린 것이다. 물론 그녀가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수년간 받았던 외부 회의 사례비가 문제가 됐다. 그녀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었다. 더구나 집단평가에서 하위 점수를 받아, 결국 연말 인사에서 보직을 잃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는다. 출퇴근 시간에도 남들 눈에 띌까 싶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근무시간 중에 가급적 복도에 안 나가는 것은 물론, 화장실을 갈 때도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한다.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 아프고 힘들다. 회사를 그만둬야 할 지를 매일 생각한다. 회사 발전을 위해 매사 적극적으로 행동하던 그녀였는데, 회사는 이제 그녀를 원치 않는 것 같다. 오히려 가급적 빨리 조직을 떠나줬으면 한다. 하루 종일 회사에 있기는 한데, 회사는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이 비루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보직 잃고 회사에서 투명인간 취급받아

직장생활에서 십중팔구는 꿈과 현실의 거리를 발견하고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자신의 처지를 운명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인생이 이럴 수 있냐는 허무감에 빠진다. 열 중 한둘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되고 싶었던 것이 된다. 그러나 내 능력은 대체될 수 있고, 나보다 큰 돈 버는 자가 있으며, 계속 지배받는 것이 버겁다는 사실에 눈을 뜬다. 게다가 정상에 올라가 보면 별 것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공허감을 느낀다.

그녀는 정상을 눈앞에 두고 추락했다. 억세게 운이 나빴다. 그런데 세상이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매일 고립감을 느낀다. 원래 활달하고 사교적이었는데, 이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그녀는 매일 굴욕감을 느낀다. 원래 나서기를 좋아했는데, 이제 아무도 그녀에게 통제되지 않는다. 그녀는 매일 고독감을 느낀다. 원래 두루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정서가 메말라 간다. 그녀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누구나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를 가진다. 대인관계 욕구는 관계를 동기화하는 심리사회적 욕구다. 소속 · 통제 · 정서의 3가지가 있다. 소속 욕구(Inclusion)는 인간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며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다. 스스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낀다. 통제 욕구(Control)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다. 스스로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느낀다. 정서 욕구(Affection)는 정서적인 유대와 따뜻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다.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누구나 3가지 욕구에 대한 자기 기준이 있다.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불편하다.

소외의 덫에 걸린 사람이 있다. 어려서 부모님이 별거나 이혼을 했다든지,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다. 부모님이 이사를 많이 해서, 가는 곳마다 혼란스럽고 적응이 안 된 경우다. 부와 권력, 신분, 갈등 등으로 유별난 가족이라고 느끼면서 자란 경우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누구하고도 어울리지 않고, 어디에도 적합하지 않다." 여러 모임에서 항상 긴장과 불안에 사로잡힌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겉도는 느낌을 가지며, 자주 외로움에 빠진다.

그녀의 소외감은 남다르다. 급작스런 사회적 변화에서 왔다. 그녀는 왕성한 대인관계 욕구로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했다. 그런데 주름잡던 무대에서 밀려났다. 그녀는 상대적으로 고립감 · 굴욕감 · 고독감을 강하게 느낀다. 과잉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가 손짓하기를 기대해 본다. 희망사항일 뿐이다. 후배들이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 꿈에서 깨야 한다. 나름대로 회사에 기여해 본다.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격이다. 나름대로 후배들에게 접근해 본다. 냉혹한 현실을 실감한다. 그녀는 투명인간이 된 것이다.

무엇이 됐어도 허(虛)하고, 안 됐어도 허(虛)한 까닭은 무엇인가?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한다. "괴로운 양심의 소리에 경청하라!" 이는 삶 자체가 던지는 음성이다. 갈등이 맴도는 삶의 분위기에서 구토를 느껴 '무엇'인가를 눈치 채고, 부와 권력과 신분에서 굳혀진 '무엇'을 깨고, 사회가 요구하는 '나 아닌 나'가 되는 길에서 돌이켜, 시간을 다 쓰기 전에 '자기(Self)'가 되라는 것을 뜻한다. 태어나기 전 본래의 얼굴(本來面目)을 찾으라는 말이다.

이제, 그녀에게 초점을 맞추자. 탁월한 처방은 무엇일까?

첫째, 내 일에 충실하자. 보직에 밀려 허드렛일(?)을 하게 되었다고 절대 비루해하지 말자.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충실하다. 5년은 짧고도 긴 기간이다. 어찌 알겠는가, 세상이 바뀌면 다시 발탁될지? 옛날에 한 재상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는 왕에게 1년만 살게 해주면 왕이 탄 백마가 하늘을 날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왕은 허락했다. 재상이 집에 오자, 부인이 뾰족한 수가 없는데 두 번 죽는 격이라고 땅을 치며 울었다. 재상이 웃으며 말했다. "걱정마라! 1년 내에 왕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어찌 알겠는가, 세상이 바뀌어 말이 하늘을 날지."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일을 맡기겠다.'

세상이 바뀌어 말이 하늘을 날 수도

둘째,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자. ①절대 피하지 말자. 소외감은 소외감을 부른다. 움츠려 들지 말고, 예전에 하던 대로 생활하자. 구내식당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도 타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자. ②모임에 절대 빠지지 말자. 소외감은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다. 아무도 그녀를 소외시키지 않는다. 모임에서는 되도록 과거를 얘기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삼가며,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야 한다. ③후배들에게 도움을 주자. 30년 동안의 경력이 어디로 가겠는가? 그녀의 조언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지, 절대 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베풀 때가 온 것이다. 성공의 척도는 수확이 아니고, 얼마나 씨앗을 뿌렸는가에 달려 있다.

셋째, 내 마당을 쓸자. 고독한 시간은 소중한 기회다. 정도전은 10년 동안의 유배생활에서 조선 건국의 청사진을 그렸다. 정약용은 18년 유배생활을 통해 실학을 집대성했다. 5년 동안은 충분한 기간이다. 유배기간이라 생각하면 무어라도 못하겠는가?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다. 요즘 평균 수명은 80년을 넘겼다. 퇴직 후 20~30년을 더 살아야 한다. 고독한 시간은 충전의 기회다. 그럼을 그리는 사람은 심심하지 않다. 시를 쓰는 사람도 심심하지 않다. 혼자서 화단에 물을 주는 사람도 심심하지 않다. 창밖으로 아이들 뛰노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심심하지 않다. 고독한 시간에, 오랫동안 시달리다 지친 자신의 혼(魂)을 충 전시킬 수 있다. 'Aloneness'는 'All+Oneness'이다. 고독은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한국형에니어그램 4기 전문강사 이후경 박사
정신과의사, 경영학박사, LPJ마음건강 대표
연세대 의과대학과 동대학원을 거쳐 정신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연세대 경영대학원과 중앙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임상집단정신치료〉, 〈후박사의 마음건강 강연시리즈 1~5권〉 〈후박사의 힐링시대프로젝트〉 등 100여권의 책을 저술했다.

3번 유형들의 원만한 관계를 위한 사례

사례1 ■ 3W2, 분열, SE

내가 가진 성공 지향적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성격은 타인으로 하여금 함께하기 어렵다는 인상을 준다. 특히 함께 일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처음의 계획과 다른 전달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하곤 하는데 특히 행동을 하는데 조심스러운 1번 유형의 사람들은 그런 갑작스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금까지는 내 행동의 효율성과 계획성이 철저하다고 믿고 무조건적인 신뢰를 해왔었지만 에니어그램을 접하고 타인의 성격과 성향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를 갖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것 과 타인이 원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내 자신에 대한 이해와 행동의 일관성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하고,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다. 겉모습으로 평가받고 있는 목표 지향적이고 차가운 이미지 때문에 타인배려로 인해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이나 상처들을 표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법도 배워야 할 것 같다.

사례2 ■ 3W4, 분열, SE

3번 유형의 적응력은 뛰어나다고 한다. 실제로 그런 것 같다. 나는 어느 사회 어디에다 떨쳐 놔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전적으로 내 생각이다). 직장에서의 나는 보다 협력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자칫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냐?'와 같은 착각에 자주 빠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다른 사람을 종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것은 특히 내가 직장 내에서 나의 입김이 조금 세어 질 때 이런 양상을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일까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사실은 나에 대한 불신이다)이 싹트고 다른 사람의 업무를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내가 주로 사용하는 말 중에 직장 내에서는 주로 '그까이꺼 대충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거 아녀그거'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다른 사람들은 말은 쉽지... 라고 이야기하면 서도 결국 그렇게 하고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일 못한다고 얕잡기 일쑤이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에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나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된다. 직장 내에서 나는 협력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 특히나 내가 부족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부족이다. 이러한 기술을 적절히 개발하고, 업무 성취에 대한 거만한 나의 생각을 우선 살펴 볼 줄 알아야 될 것이다. 때때로 사람에 의해 상처받는 나의 모습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하며, 내가 왜 화가 나는지, 그리고 내가 왜, 힘들어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온전히 들여다보며, 보다 가치 있는 철학적 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사례3 ■ 3W균형, 분열, SO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나의 장점을 조직에 적용하여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나의 장점은 낙천적이고 우호적이다. 또한 패배로부터 재빨리 회복하여 도전할 수 있는 돌격자세로 돌아가는 경향이 빠르다. 또한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간의 절약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의 효율성을 알릴 수 있다.
또한 사람들에게 진실성을 통해 시간의 절약과 의욕과 용기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실패를 경험한 것을 오히려 과대포장하지 말고 감정에 표현이 과대 포장을 벗겨 내면 진실한 내면의 자아와 만나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재검토하고 진정한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에서 나이는 어리지만 많은 경험과 성공과 적절한 인간관계 형성에 비법을 통해 서로에게 좋은 정보로 주어질 때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조금씩 시간을 내어 조직과 함께 시간을 통해 많은 개인적 경험과 사적인 만남을 통해 나의 진실성과 열정을 알 수 있도록 조심히 조직에 다가서는 경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조직을 우선하기 보다는 가정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나의 자신의 감정과 목표를 조금씩 조정하면서 변화하여 나를 우선으로 하여 성공보다는 나의 발견의 성취를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방향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4 ■ 3W2, 분열, SE

나는 뚜렷한 목표가 없고, 느리고, 순발력 없고 그리고 나태한 이들을 경멸했었다. 하지만 7 번 유형의 낙천가, 9번 유형의 중재자, 4번 유형의 예술가들이 이런 모습들을 조금씩 갖고 있고, 자신의 속한 곳에서 힘겨울 때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격유형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다들 자신만의 색깔로 개성과 특성들을 갖고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성격에 따라 좋아하는 관점과 살아가는 관점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들이 저마다 다를 수 있음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저마다의 색깔로 직장이라는 곳에 조직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면 당연히 충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들과 내가 만나 잘 맞아서 조화가 되어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잘 맞지 않아 충돌이 일어날 땐 나를 뒤돌아보고 나의 행동이 저들에게 어떻게 보여서 그런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을 고치도록 노력을 해 보아야겠으며, 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이가 있다면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행동의 결과로 인해 충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몰지각한 생각으로 인해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들은 어떤 유형일까 한번 유추해보아 그들을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이가 조금 더 나아졌을 때 에니어그램을 접하게 하여 직접적인 아닌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그리고 나에게 자신도 모르게 주었을 상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해볼 것이다. 이렇게 하고도 안 된다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충돌을 피하게 될 것 같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는 상대적이라는 생각을 나는 항상 한다. 타인의 행동은 나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물이 될 수도 있음을 나는 다시 한 번 상기해 본다.

영화를 정신분석적으로 관람하기

3. 영화 속 인물의 불안과 방어기제

⑴ 주인공의 불안

주인공 '코브'는 아내 맬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고 두렵다. 아내를 사랑하지만 현편으론 자신과 함께 죽으려고 했으며 아이를 돌보지 않고 무의식 세계에 얽매여 있었고 자신을 두고 자살해 버린 아내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내 맬에 대해 화가 나지만 아내는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기에 화를 낼 수 없다. 또한 아내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사랑했기에 더더구나 화를 낼 수 없다. 아내에 대한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코브의 죄책감은 더욱 커지고 그래서 불안해진다. 자기의 실수를 대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 때문에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다. 그래서 코브는 아내를 사랑한다는 감정에 충분히 머물 수도 없고 아내에게 진솔되게 화를 낼 수도 없다. 사랑한다면 자기의 실수를 더욱 용서할 수 없고, 화를 낸다는 것 또한 안되는 일이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코브는 무력감 속에 매우 불안정한 캐릭터가 되어 버린 것이다.

⑵ 주인공의 방어기제

주인광 '코브'가 주로 쓰고 있는 방어기제는 바로 억압이다. 영화 속에서 코브의 아내 맬은 코브에게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으며 자주 코브를 위

협한 상황에 빠뜨려 죽이려고 한다. 맬이 코브의 무의식적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코브가 아내에 대해 품고 있는 욕망이 투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철저하게 꿈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는 억압되고, 이러한 억압으로 인해 맬이라는 무의식이 생기고 점차 코브를 잠식하게 된다. 억압은 그 특성상 해소를 전제로 한다. 그 결과 맬은 끊임없이 코브의 꿈속에 등장함으로써 다루어지려고 한다. 코브는 맬이 보이면 왜 자신이 불안하고 두려워지게 되는지알 수 없다. 이는 알 수 없는 무의식적 위험에 대한 공포이기 때문에 두려운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맬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억압하다보니 현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삶이 불완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화 속 코브는 현실 속의 직업을 갖지 못하고 계속 이나라 저 나라를 떠돌며 무의식 세계 속에서 산다.

4. 영화 속 외디푸스 콤플렉스

⑴ 피셔와 아버지의 관계

피셔와 아버지의 관계는 좋지 못하다.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때 아버지가 피셔에게 해 준 말은 '너에게 해줄 말이 없다'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임종 때도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인 피셔에게 '실망스럽다'라는 말을 했을 뿐이다. 피셔가 병 든 아버지에게 소중한 기억이 담긴 사진을 놓아두었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려주지 않는다.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는 좋을 수 없으며, 아버지에 대한 감정또한 부정적일 것이다.

⑵ 피셔의 외디푸스 콤플렉스

피셔의 아버지는 세계적인 사업가로 일과 성공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버지는 가정에 소홀했을 것이며, 그 결과 피셔와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많이 밀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외디푸스기에 충분히 아버지를 동일시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심리적 결핍이 되었고, 피셔로 하여금 끊임없이 아버지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셔는 외디푸스 콤플렉스를 잘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외디푸스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어머니에 대한 강력한 집착, 그리고 심리적 경쟁자인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이다. 이렇게 외디푸스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피셔는 아버지로부터 심리적 독립은 물론 물리적, 경제적 독립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영화 속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피셔는 '아버지처럼 못돼서 실망시켜 드려 죄송하다'는 말을 한다. 아직도 마음속에 남근기의 아이가 있는 피셔는 아버지라는 강력한 존재를 닮는 것이 가장 안전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겉으로는 강하고 어른스러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유년기의 애정에 대한 결핍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콤플렉스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며,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최대의 위기이자 기회라는 사실이다.

⑶ 피셔의 인셉션

피셔의 인셉션은 바로 외디푸스 콤플렉스의 극복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피셔의 인셉션 메시지가 '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겠다.' 나 스스로 뭔가 이루어보겠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자신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바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한 명의 남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피셔의 인셉션이다. 피셔의 인셉션 마지막 장면에서 피셔는 자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아버지와의 기억을 아버지도 소중히 간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토록 원했던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이 채워지면서 피셔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자유로워진다. 바로 인셉션이 성공하는 순간이다. 강가에서 피셔는 이렇게 말한다. "아버진 내가 나로 살길 바라셨어요. 아버지를 위해 살지 말라구요. 이제 그렇게 하려 구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면서 아버지를 온전히 수용하게 된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거리를 두는 것도 아니며 아버지와 밀착되는 것 또한 아니다. 아버지라는 영역에서 편안하고 자유로워지는 것. 영화 속 피셔의 표정이 매우 편안하고 보드라워졌으며 생기가 생겼다. 짙게 드리워졌던 아버지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소년에서 남자'로 자신의 인생을 개간하기 시작하는 피셔의 성장은 그렇게 시작된다.

에니어그램과 빛소금이 만나다 헤알멘토십 프로그램

한국형에니어그램 11기 전문강사
조혜성 계룡산 빛소금 체험관 운영

2015년 11월, 조혜성 전문강사는 공기 좋고 물 맑은 계룡산 자락에 위치한 빛소금 체험관 운영을 맡게 되었다. 계룡산 빛소금 체험관은 20여년 전에 지어졌으며 총 3개동으로 이루어진 소금집이다. 15여년 전부터 건축내부 자재를 용융소금으로만 지은 세계 최초의 소금집이다.
빛소금 체험관은 빛소금 관련 제품을 비롯해 가정이나 기관 어느 곳에나 설치 가능한 이동식 소금 방, 전망이 있는 소금침대, 소금 반신욕 등 소금으로 만든 다양한 소금응용제품들이 다수 전시될 예정이다.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경험할 수 있는 빛소금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대나무 힐링 숲 체험, 계룡산 국립공원 등산 코스, 계룡산 계곡 힐링, 캠핑장 등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체험관 운영에는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이었다. 어떤 장소든 어울리는 음악이 흘러야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 장르를 탐색하면서 스피커 설치를 위해 위치를 잡아보기도 하고, 이동식 스피커로 볼륨을 가장 크게 높여 놓고 음악을 틀어보기도 했다. 산울림과 함께 들리는 음악은 환상적이었다. 하지만 그토록 아름다운 음악이 꺼진 순간,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자연의 화음소리, 여러 종류의 새소리와 바람소리, 계곡소리, 대나무가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 바람 부는 날 낙엽이 흘날리며 나는 소리, 비가 좀 오는 날이면 계곡물소리는 산속에 고요함을 깨고 우렁찰 만큼 크게 들렸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아름다운 자연의 화음에 매료되어 이제는 굳이 음악을 틀지 않는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음악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헤알 멘토십 프로그램

에니어그램은 나 자신을 바로 알고 타인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써 나 자신이 주체가 되는것이라고 한다면 빛소금은 내 몸은 내가 지키고, 내 병은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것에 기본정신을 두고 있다. 이에 몸과 마음을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에니어그램 나눔과 힐링 프로그램인 헤알 멘토십에서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빛소금이야기로 우리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보았다.
헤알 멘토십 프로그램은, 자연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는 에니어그램 나눔과 힐링 프로그램이다. 내 집 같은 편안한 일생생활을 느끼며 나와 타인에 대한 헤알(헤아림과 알아차림)으로 나와 타인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등산과 소금스파를 즐기며 함께 모여서 밥을 만들며 먹고, 차를 마시면서 새, 나무, 산과 계곡 그리고 자연 속 한 일원이 되어보는 것이다.
우리 자신은 헤아림과 알아차림 속에서 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 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부분은 더 키워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반성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나간다.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성공했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능력을 한 가지쯤은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잘하지 못하더라도, 좋아하고 즐길 줄 아는 한 가지는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각박한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 즉, 다른 이들은 잘 아는데 본인만 본인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그것이다.
자기가 가진 능력을 계발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법을 몸으로 익혀 보았으면 한다. 헤알 멘토십 프로그램은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다. 함께 참여하고 다 함께 만들어 감으로써 참가자 전원이 멘토 멘티가 되어 어울리며 값진 성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빛소금이야기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요소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좋은 소금이다. 빛 소금이란, 1000℃ 이상의 고열에서 녹여 가스, 간수, 각종 불순물등을 완전히 제거해 소금의 본성을 되살린 깨끗하고 좋은 소금을 말한다. 암을 비롯한 모든 성인병을 고치는 약과 식품은 없다.
우리 몸의 혈액 속에 0.9% 소금이 유지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 혈액 온도가 떨어져 냉병이 온다.
- 세균이 들어와 모든 염증의 원인이 된다.
- 불순물 분해 능력이 떨어져 각종 결석이 생기는 원인이 되어 모세혈관이 막혀 혈액순환에 장애요인이 된다. 깨끗한 소금을 먹으면 소변을 통해 불순물이 자연스럽게 빠져 나온다.
- 몸 안에 불순물이 소변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되면 피로가 누적되어 항상 피로하고 의욕이 없어지게 된다. 하루에 한잔 소금차(Sal Tea)를 마시면 건강한 하루를 지내는데 도움이 된다.

빛소금체험 프로그램

빛소금 스파 체험과 핸드메이드 제품을 직접 만들어 한 가지씩 가지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빛소금 소금비누 만들기, 빛소금 립밤 만들기, 빛소금 샴푸 만들기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빛소금 발효식품 연구팀에서는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젓갈 담그기 등 빛소금을 이용해 먹거리와 발효식품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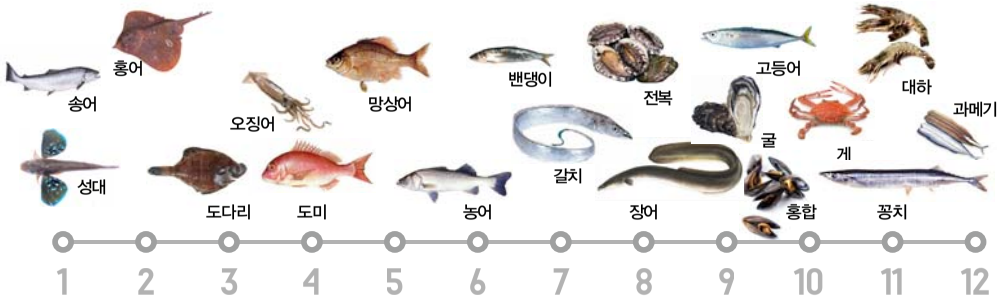
계룡산 빛소금 체험관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도예촌길 109(상신리)
원장 : 조혜성
H.P : 010-9484-5033
Email : saltloves@naver.com
Fax : 070-7675-4944
http://www.빛소금.com

지금이 제철! 해산물 맛 달력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마다 아름다운 풍경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 제철을 맞은 음식을 만끽하는 미각의 즐거움이다. 피고 지는 꽃처럼 물이 올랐다 내리는 생선과 해산물의 맛이 언제 절정으로 만개하는지, 계절 별로 정리했다.

매년 한여름 복날의 광기가 물러난 가을 초입 즈음에 민어를 먹으러 인천 화선횟집에 가곤 했다. 여름 내내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던 식당도 이맘때쯤에는 절간처럼 고즈넉해진다. 식당에 들어가 민어회를 시켜놓고 낮술을 시작한다. 쫄깃한 식감의 부레와 데친 껍질은 참기름장에 찍어 먹는다. 잘 숙성시킨 민어회는 먹을 만큼 먹고, 조금 남겨 생선전을 부쳐 먹는다. 퍼석한 식감 때문인지 민어회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지만, 카스텔라처럼 폭신한 민어전을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근처 정육점에서 양지를 조금 사다가 서울식으로 민어탕을 끓여달라고 부탁한다. 식사를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노을을 뒤로 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여정은, 지나가는 여름에게 적절한 인사를 건네고 다가오는 계절을 맞이하는 나만의 의식이었다.

500년 전, 익산 땅에 유배되어 거친 끼니로 연명하던 허균도 비슷한 심정이었던 것 같다. 그는 [도문대작](屠門大嚼, 푸줏간의 고기를 보고 고기 씹는 시늉을 한다는 의미)이라는 책에 자신이 예전에 먹었던 음식들을 자세히 묘사해놓고, 고기 씹는 시늉을 하듯 가끔씩 들여다보며 아픔을 달래곤 했다고 한다. 여기 허균이 했던 것처럼 절절한 마음을 담아 만든 나만의 제철 해산물 '도문대작'이 있다.



겨울에 맛이 없는 생선이 있을까?

평소에는 맛이 없어 줘도 안 먹는다는 동해의 기름가자미도 겨울 해풍에 꾸덕하게 말려 연탄불에 구워 먹으면 좋은 술안주가 된다. 마포 남해바다(02-707-3101)에서 여수식으로 살짝 얼린 삼치회를 김에 싸 먹어도 좋고, 서울에서 초장이 제일 맛있는 충무로 영덕회식당(02-2267-0942)에서 구룡포 과메기를 물미역에 싸 먹어도 좋겠다. 노량진이나 가락시장에 가서 깊은 바다의 맛이 나는 새조개를 사다가 근처 식당에 부탁하면 샤브샤브로 먹을 수 있다. 특히 겨울에 노량진 충남식당(02-813-9780)에 가면 청량감이 느껴질 정도로 잘익은 김장김치를 덤으로 맛볼 수 있다. 이 계절은 또 생선의 간과 이리에 맛이 드는 때다. 찬 바람이 들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아귀간을 먹으러 신사동 마산옥(02-544-7207)이나 제기동 소정(02-962-8060)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겨울의 아귀간만큼은 최고급 푸아그라를 준다 해도 바꾸고 싶지 않다. 다동 철철복집(02-776-2418)에서는 중국인들이 절세 미녀 서시(西施)의 젖에 비유했던 복어 고니를 맛볼 수 있고, 종로 순라길(02-3672-5513)에서는 인심 좋은 주인 아주머니가 살짝 서비스로 내주시는 흑산도 산 홍어 애를 먹어볼 수 있다. 아마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의 후식도 이렇게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입안에서 녹아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야말로 겨울의 감각이다.

보리가 익기 시작하는 초여름에는 숭어 눈에 백태가 낄 정 도로 기름이 오른다.

이때 숭어를 보리숭어라고 따로 부른다. 보통 숭어는 1kg에 1만원 안팎의 값싼 생선이지만, 이 계절 노량진에 가서 숭어를 찾으면 "손님, 생선 좀 아시네요"라는 칭찬을 듣기도 한다. '보리'라는 별명이 붙는 생선이 숭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리농어도 있고, 수박 향이 은은하게 나는 보리은어도 있다. 이때쯤이면 동해 어느 어시장에 가더라도 난전의 아주머니들이 젓갈통 하나 가득 성게알을 손질해놓고 팔고 있다. 거창한 요리도 필요 없다. 그저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스푼 하나 얻어다 길가에서 시원한 맥주에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남해의 여름은 역시 하모(갯장어)다. 여수에서는 주로 살짝 데쳐 유비키(샤브샤브)로 먹는데, 서울에서는 대치동 여수동촌(02-556-0530)이 하모 유비키를 메뉴에 올린다. 하모는 가시가 많아 칼집을 많이 내서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끓는 물에 넣으면 금세 꽃처럼 피어오른다. 하모 꽃이 피면 비로소 여름이 온 것이다.

가을에는 등 푸른 생선들의 맛이 절정에 이른다.

마산에 내려가 살이 오른 '떡전어'를 먹으면 좋겠다. 신문과 방송에서 아무리 9월부터 제철이라고 떠들어도 느긋하게 늦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충분히 크게 자란 전어를 먹어야 한다. 크기가 작은 타 지역 전어는 20cm가 넘어가는 마산 떡전어의 맛을 따라갈 수가 없다. 서울에서는 잠원동 진동횟집 둔(02-544-2179)의 전어가 비교적 씨알이 굵다. 일본 사람들은 가을의 생선으로 꽁치를 꼽는다. 회로 떠놓은 꽁치는 기름이 올라 반짝거린다. 일본의 미식가 로산진의 말대로 제아무리 비싼 도미라도 제철을 맞은 꽁치보다 맛이 좋을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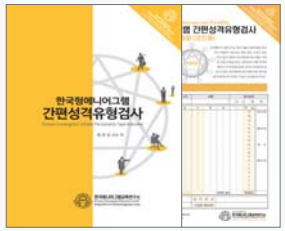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검사도구 및 출판도서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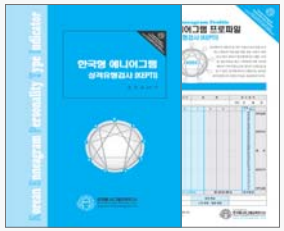
구매문의 02)3446-3165

※ PDF 파일을 다운받아 도서 표지를 클릭하시면, 보다 상세한 도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구



KESPTI
한국형에니어그램 간편성격유형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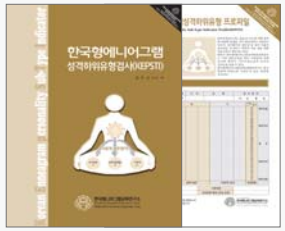
KEPTI
한국형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

KEPTI-J
한국형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 청소년용

KESPTI-CLS
한국형에니어그램 진로 및 학습유형검사

KEPTI-C
한국형에니어그램 아동용 성격유형검사

KEPTI-Y
한국형에니어그램 간편성격유형검사 아동·청소년용



KEPSTI
한국형에니어그램 성격하위유형검사

위 검사지는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형에니어그램 1단계 이상 수강자에 한해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Korean Enneagram Education Center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9 SJ테크노빌 1116호
TEL. 02)3446-3165 FAX. 02)515-6784 Email. help@keneagram.com

홈페이지 | 공식블로그 | 페이스북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검사도구 및 출판도서를 소개합니다.

구매문의 02)3446-3165

※ PDF 파일을 다운받아 도서 표지를 클릭하시면, 보다 상세한 도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판도서

더 많은 도서 확인하러 가기!

• 한국형에니어그램 사례집Ⅱ

• 에니어그램 지능

• 에니어그램 실제 가이드

• 에니어그램과 함께 영혼잠재력 발견하기

• 한국형에니어그램 사례집Ⅱ

•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 에니어그램으로 본 다문화세상

• 성공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9가지 성격

• 에니어그램의 이해

• 에니어그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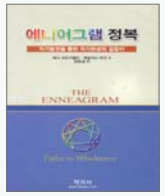
• 에니어그램과 돈 : 두려움에서 사랑까지

• 에니어그램을 통한 지혜리더십

• 에니어그램의 깨달음

• 집단지능과 번영을 위한 9가지 설계원리

• 핵심에니어그램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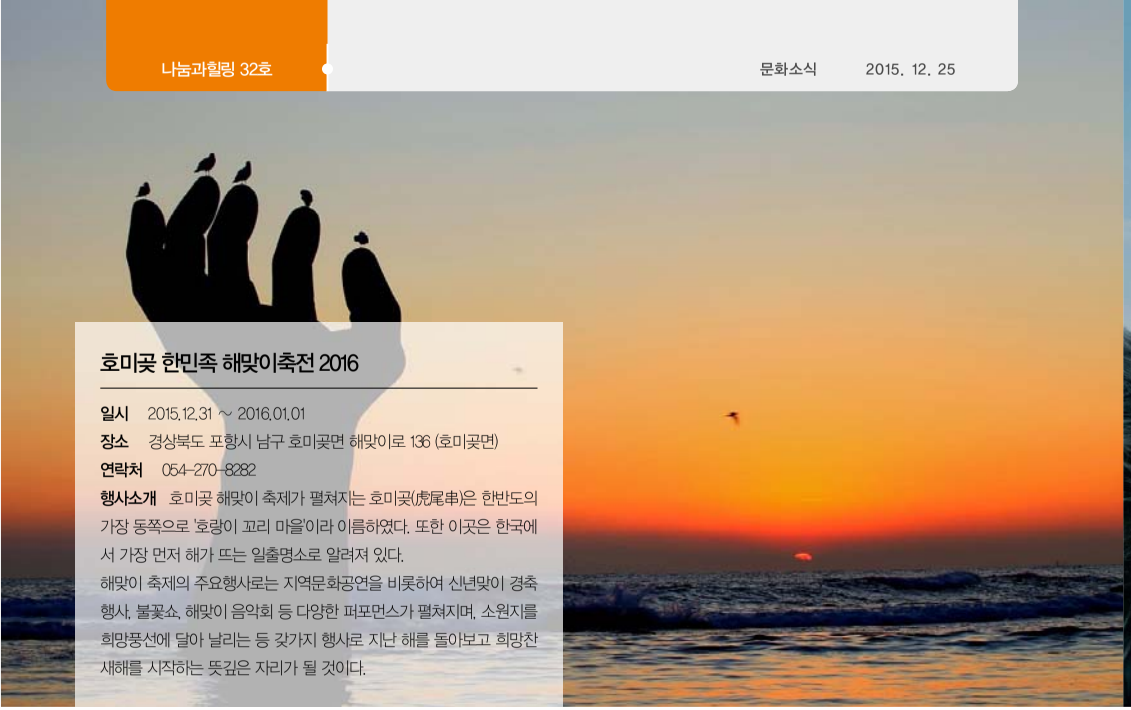
• 에니어그램 정복

• 영화로 배우는 심리학개론

• 필수 에니어그램

• 한국형에니어그램 사례집

• 에니어그램 성격: 자기발견과 인간관계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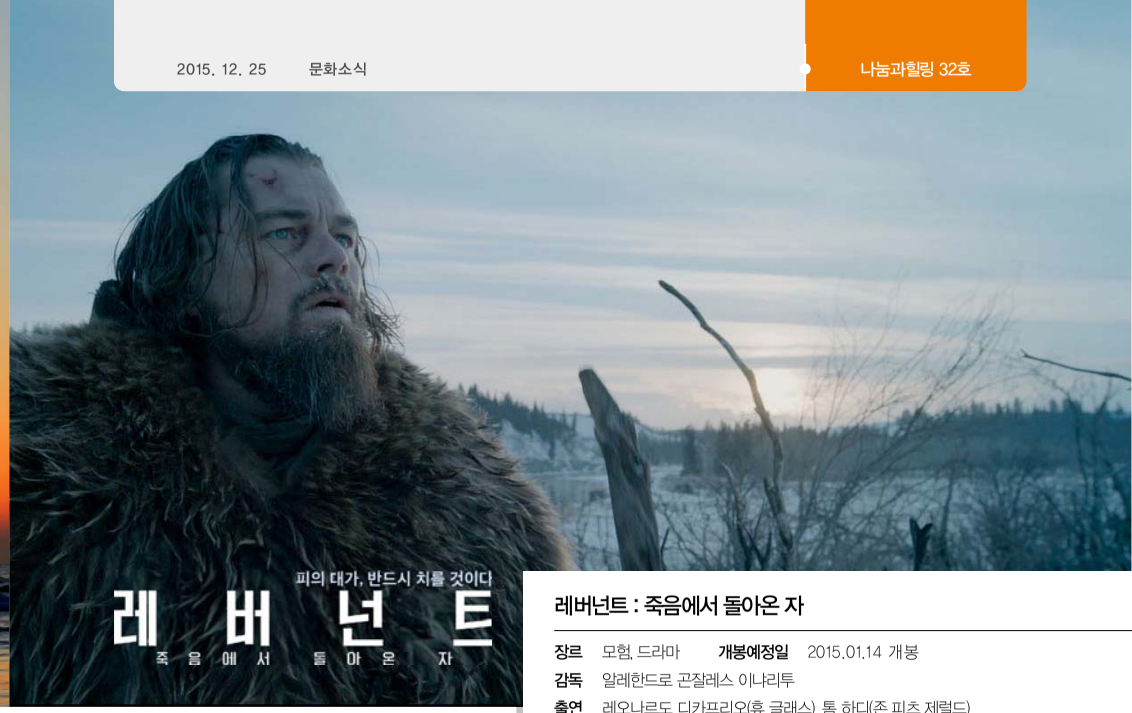
일시 2015.12.31 ~ 2016.01.01
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136 (호미곶면)
연락처 054-270-8282
행사소개 호미곶 해맞이 축제가 펼쳐지는 호미곶(虎尾串)은 한반도의 가장 동쪽으로 '호랑이 꼬리 마을'이라 이름하였다. 또한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일출명소로 알려져 있다.
해맞이 축제의 주요행사로는 지역문화공연을 비롯하여 신년맞이 경축행사, 불꽃쇼, 해맞이 음악회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소원지를 희망풍선에 달아 날리는 등 갖가지 행사로 지난 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알레산드로 멘디니전

기간 2015.10.09 ~ 2016.02.28(매주 월요일, 구정 당일 휴관)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M1 디자인전시관
문의 02-542-4920
요금 성인 14,000원, 대학생 12,000원, 청소년 10,000원, 어린이 8,000원
특별할인: 만 3~6세, 65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6,000원
무료입장: 36개월 미만 유아 무료입장
* 할인 대상자는 증빙서류 지참 필수. 증빙 미지참시 차액 지불.
행사소개 올 10월부터 세계적인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초대형 전시가 서울디자인재단, 아뜰리에 멘디니,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공동 주최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전시관에서 열립니다. 국내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그의 이름을 걸고 이루어지는 최초의 대규모 단독 전시입니다.

동물원전

일시 2015.03.28 ~ 12.31
장소 화정박물관 2층 특별전시실
문의 02-2075-0114
요금 4,000원
행사소개 2015년 화정박물관은 동물원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하여 화정박물관의 중국 미술 소장품 가운데 다양한 동물의 모습이 표현된 도자, 칠기, 복식, 부채 등의 공예품 및 회화 작품을 공개합니다. 동물원 특별전은 회화를 비롯하여 도자, 칠기, 복식, 문방구 등의 각종 공예에 '동물'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구체화되어 표현되었는지 살피고, 이를 통하여 전통사회에서 각 동물에 대한 인식과 그에 투영된 의미, 가치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레버넌트 : 죽음에서 돌아온 자

장르 모험, 드라마 **개봉예정일** 2015.01.14 개봉
감독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
출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휴 글래스), 톰 하디(존 피츠 제럴드)

도서 소개

에니어그램 성격:자기발견과 인간관계

급변하는 격동의 시대에서 직장인들은 생존을 건 싸움을 반복하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나 헛돌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리고 있다. 회사가 자신을 지켜 주었으면 하는 욕구나 잘 나가던 과거에 안주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직장인들도 많다. 자신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할지 모르는 나날은 너무나도 불안하다. 이미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각자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자신의 삶과 인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창의 · 인성교육 효율성으로의 초대 〈푸드아트테라피〉

푸드아트테라피는 진정으로 세상과 통하는 법을 잘 알려 준다. 또 그것을 다른사람들에게 전하는데도 매우 탁월한 도구이자 수단이 된다. 그동안 일반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하여 보호관찰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적 장애, 발달장애 등 특수청소년, 대학생, 전문상담자, 진로지도자, 원예치료사,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교사, 일반 성인 및 노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푸드아트테라피를 교육하고 실시해오며 긍정적 피드백과 감사의 인사를 많이 받아왔다.
푸드아트테라피는 그 자체로도 상담 및 치료의 효과 면에서 탁월성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상담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에게 보다 부담 없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상담은 참 어렵고 부담이 된다는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도 크게 기여하고있다. 때로는 놀이로, 때로는 재미있는 교육으로, 때로는 문화와 예술로, 또 때로는 상담 및 치료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맞게 활용하면 된다.
푸드아트테라피는 식품을 매체로 하여 감성적인 표현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긍정적 사고로의 전환과 확장을 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자신은 물론타인과 세상에 대한 대긍정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

강원도청소년문화진흥원

2015년 12월 2~3일 강원도청소년문화진흥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로도구활용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한국형에니어그램 사다리 게임, 멘토카드, 장점 퍼즐, 멘토북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진로를 찾도록 돕고,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구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실습을 통해 학습하였다. 청소년들에게 유형별 멘토를 찾아줌으로써 진로탐색과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충남광역시 정신건강증진센터

2015년 12월 10일 충남광역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탈북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도경 전임교수의 지도 하에 한국형에니어그램을 통한 꿈찾기 프로그램 'Dream Maker'를 진행하였다. 본 과정은 한국형에니어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탐색하고 행복한 학교생활과 건강한 교우관계 형성하며, 학부모는 자녀의 관점을 이해함으로 효과적인 자녀와의 관계 방향성을 찾아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1단계

2015년 12월 11~12일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전공자를 대상으로 황은신 전임교수의 지도 하에 한국형에니어그램 1단계 교육을 진행하였다. 한국형에니어그램 1단계는 에니어그램의 이해를 통해 자신의 유형과 타인의 유형을 알아봄으로써 다름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에니어그램의 지혜를 통해 내담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

연동초등학교 교사특강

2015년 12월 11일 연동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김정희 전임교수의 지도 하에 교사 특강이 진행되었다.
특강은 한국형에니어그램을 통한 성격유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에니어그램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기 통합과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과정이었다.

청소년리더십과정

2015년 12월 12~13일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에서 지미선 전임교수의 지도 하에 청소년리더십과정을 진행하였다.
본 과정은 한국형에니어그램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과 청소년 본인의 유형에 맞는 최상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다. 9가지 성격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셀프리더십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지도자양성 프로그램이다.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교육기부대상 수상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가 2015년 12월 15일 오후 4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2015년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매년 교육기부 활동을 활발한 전개한 기업을 선정하는 상으로 올해로 4회째 진행된다. 교육기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올해 시상식에서 본 연구소는 '한국형에니어그램' 프로그램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사렛대학교 한국형에니어그램 교육

2015년 12월 16일~17일 나사렛대학교에서 지미선 전임교수의 지도 하에 한국형에니어그램 3단계 과정과 검사의 해석과 활용 교육이 진행되었다. 본 과정은 '한국형에니어그램 3단계'인 에니어그램 적용을 통해 하위성격유형검사를 진행, 유형별 그룹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한국형에니어그램을 통해 나의 성격을 파악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미양고등학교

2015년 12월 17, 18, 21일 미양고등학교에서 한국형에니어그램 1단계 교육이 진행되었다.
한국에니어그램교육과정을 통하여 자기관찰, 자기이해, 자기발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성공하는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에니어그램은 정서적 특성, 사고방식, 인간관계 양식 등을 포함하고 있어 자기 자신의 집착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에니어그램 4단계

2015년 12월 19~20일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한국형에니어그램 4단계:에니어그램 평가를 진행하였다.
에니어그램 의식수준에 대한 탐구과 영화테라피, 명상을 통해 한국형에니어그램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하고 머리, 가슴, 장을 통합하는 시간이 되었다.

여주교육지원청 통합예술치료상담사 과정

사단법인 성심인성연구원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여주교육지원청에서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통합예술치료상담사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지영, 조선화 전임교수의 지도 하에 진행된 본 교육과정은 영화 및 사진 등과 같은 예술치료를 통해 성인 및 청소년 심리와 상담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실습할 수 있었다.

제6회 저널리즘캠프 DREAM MAKER

2015년 12월 22일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제6회 저널리즘캠프 Dream Maker를 진행하였다. 이도경 전임교수의 지도 하에 방송인을 꿈꾸는 수습기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본 특강은 한국형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다름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애월초등학교 비전&드림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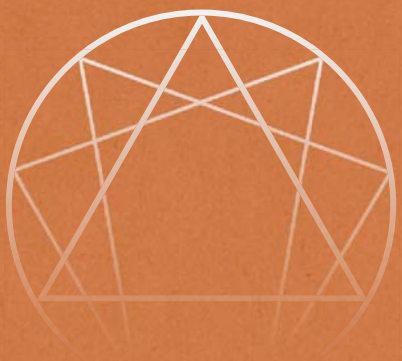
2015년 12월 23일 애월초등학교 더럭분교에서 한국형에니어그램과 함께하는 Dream Maker 특강을 진행하였다. 강성두 전임교수의 지도 하에 진행된 본 과정은 초등학생들이 한국형에니어그램을 통한 자신의 이해를 기반으로 교우와의 관계, 소통, 건강한 학교생활에 촛점을 맞춰 인성교육에 한 걸음 다가가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일정은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kenneagram.com

01
JANURARY 2016

SUN	MON	THE	WED	THU	FRI	SAT
27	28	29	30	31	신정 1	2
				* 연구소 휴무일		
3	4	5	6	7	8	9
	* 시무식		* 1단계 09:00–19:00 / 서울교육장 황은신 전임교수	* 4.5 심화단계 온양관광호텔	* 통합예술심리상담사 09:00–19:00 / 서울교육장 소희정 전임교수 * 4.5 심화단계 온양관광호텔	* 통합예술심리상담사 09:00–19:00 / 서울교육장 소희정 전임교수 * 4.5 심화단계 온양관광호텔
10	11	12	13	14	15	16
* 통합예술심리상담사 09:00–19:00 / 서울교육장 소희정 전임교수			* 2단계 09:00–19:00 / 서울교육장 지미선 전임교수		* 대전통합과정 09:00–19:00 / 대전교육장 지미선 전임교수	* 대전통합과정 09:00–19:00 / 대전교육장 이도경 전임교수 * 자기주도학습 10:00–18:00 / 서울교육장 황은신 전임교수
17	18	19	20	21	22	23
* 대전통합과정 09:00–19:00 / 대전교육장 박현경 전임교수 * 자기주도학습 10:00–18:00 / 서울교육장 황은신 전임교수			* 3단계 09:00–19:00 / 서울교육장 황임란 전임교수			* 1단계 09:00–19:00 / 서울교육장 지미선 전임교수 * 코칭 10:00–18:00 / 서울교육장 이지영 전임교수
24	25	26	27	28	29	30
* 2단계 09:00–19:00 / 서울교육장 박현경 전임교수 * 코칭 10:00–18:00 / 서울교육장 이지영 전임교수	* 푸드예술치료사 09:00–19:00 / 서울교육장 조주영 전임교수	* 푸드예술치료사 09:00–19:00 / 서울교육장 조주영 전임교수	* 푸드예술치료사 09:00–19:00 / 서울교육장 조주영 전임교수	* 푸드예술치료사 09:00–19:00 / 서울교육장 조주영 전임교수	* 인천통합과정 09:00–19:00 / 인천교육장 소희정 전임교수	* 광주 검사지교육 14:00–17:00 / 광주교육장 / 윤천성 전임교수 * 서울 검사지교육 09:00–12:00, 14:00–17:00 / 서울교육장 / 황은신 전임교수 * 인천통합과정 09:00–19:00 / 인천교육장 김정선 전임교수
31	1	2	3	4	5	6
* 대전 검사지교육 14:00–17:00 / 대전교육장 / 윤천성 전임교수 * 인천통합과정 09:00–19:00 / 인천교육장 이도경 전임교수						



ISSN 2288-2251
등록번호 : 금천 라 00139호
2015년 12월 25일~2016년 01월 24일
편집기획 및 디자인 : 류재현

발행인 · 편집인 : 윤운성
기사제보 : 02-3446-3165 / FAX : 02-515-6784
인쇄 :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편집위원 : 김새한별, 김은비, 김성주, 안신영, 김경은, 윤완진

'월간 나눔과 힐링'은 매월 25일에 발간하여 한국형에니어그램의 소식과 학술단체 및 복지단체의 소식을 전하는 통합 매거진입니다.